



체육시민연대 뉴스레터

대한민국 스포츠의 근본적인 변화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체육시민연대와 함께 동참해주세요

2025년 제 41호



2022년 4월, 하늘에 별이 된 김포FC 유소년 축구 U-18팀 정우림 선수의 명복을 빕니다
우리는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01

'형식뿐인' 교육과 징계...무너진 코트 위 신뢰[스포츠리터치]

이데일리 주형철 칼럼리스트

02

오타니가 앉았던 의자의 비밀

한국일보 유대근 기자

03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 체육·문화기관 투명성 강화 촉구

시사포커스 김영삼 기자

04

“오직 시민, 오직 미래” 유정복 시장, 노동·체육·문화가 어우러진 인천의 가을을 말하다

뉴스프리존 윤의일 기자

05

국민체육진흥공단 '튼튼머니'적립 재개

스타뉴스 채준 기자

'형식뿐인' 교육과 징계...무너진 코트 위 신뢰[스포츠리터치]

이데일리 주형철 칼럼리스트

2025-11-07 오후 11:23:30

사진=이데일리(퍼플렉시티 AI)

체육계의 민낯이 또다시 드러났다. 이번에는 전국대회 3관왕에 오른 유망주가 후배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이다. 반복되는 사건 앞에서 대중은 이제 실망과 분노를 넘어 무력감까지 호소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가 폭력·성 비위 근절을 위해 ‘무관용 원칙’과 ‘원 스트라이크 아웃’을 선언한 지 오래되지 않았다. 하지만 유사 사건이 되풀이되는 현실은 제도 자체보다 그것을 실행하는 방식과 체육계 전반의 문화에 근본적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다.

가해자에게 사실상의 면죄부를 허용하는 징계 시스템의 구조적 허점이다. 과거 불법 촬영과 학교 폭력으로 논란이 된 축구·배구 선수 사례는 ‘국내에서 징계를 받아도 해외 리그에서 활동할 수 있다’는 인식을 남겼다. 이는 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는 위험한 신호로 작용할 수 있다.

최근 진종오 의원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면서 지방 체육회장이 성추행이나 갑질 등 중대한 비위를 저질러도 자체 재심을 통해 무혐의로 결론 나가거나 ‘견책’ 수준의 징계로 경감되는 사례가 많음을 지적했다.

이처럼 내부 징계에서 제 식구 감싸기가 가능하다면 어떤 법률도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다. 두 번째 문제는 예방 체계의 관리 부재다. 국가대표 선수들의 성폭력 예방 법정 의무교육 이수율이 39.78%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증거다.

특히 대한체육회장과 인천선수촌장이 모두 탁구협회 출신임에도, 탁구 종목의 이수율이 7.41%로 최하위를 기록한 것은 책임자들의 관리 부실과 도덕적 해이를 보여준다.

대한체육회는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교육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제재 규정 부재를 이유로 이수 현황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 반면 대한장애인체육회는 내부 규정을 마련해 교육을 철저히 관리했고, 100% 이수율을 달성했다. 의지와 관리 방식의 차이가 결과를 가르는 대표적 사례다.

01

이러한 예방 교육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닐 수 있지만, 변화를 위한 최소한의 전제조건이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여전히 성적 지상주의에 매몰된 폐쇄적 문화도 문제다. 각종 언론 보도와 피해자 증언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신고 이후 ‘앞으로 운동을 이어갈 수 있을지’를 가장 두려워한다. 이는 개인의 권리보다 팀 성적과 위계질서가 우선시되는 체육계 문화가 여전히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최근 수년간 지도자가 훈련 태도를 문제 삼아 구타하고, 선수 간 집단 따돌림과 괴롭힘 문제가 반복적으로 보도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어떤 특정 종목만이 아니라 다양한 종목에서 유사한 문제가 보도되고 있다는 점은 전체적으로 점검해야 할 문제이다.

문제의 핵심은 법과 시스템의 부재가 아니라, 실행 의지의 부족이다. 이미 논의되고 있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원칙도 중요하지만, 예외와 온정주의 없이 일관되게 적용될 필요가 있다.

모호한 징계가 아닌 국내외 어디에서든 통용되는 공식적이고 투명한 징계 절차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형식적인 교육이 아닌 실효성을 담보하는 관리·제재가 뒤따를 때 변화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피해자 보호와 신고자 권익 보장을 위해 스포츠윤리센터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코트 위에서 흘리는 선수들의 땀방울이 폭력과 공포의 눈물이 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 전체가 체육계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꾸준히 지켜보고 점검해야 한다.

오타니가 앉았던 의자의 비밀

한국일보 유대근 기자

2025.11.05 19:25

사진=유대근 기자

태평양 연안을 끼고 있는 일본 동북부 이와테현은 외국인 관광객이 별로 찾지 않는 한적한 지역이다. 이곳은 현시대 일본인 중 최고 슈퍼스타의 고향으로 유명하다. ‘야구의 신’ 오타니 쇼헤이(31·LA다저스)다.

2023년 11월 운 좋게 오타니가 졸업한 이와테현의 하나마키히가시고교를 방문 취재했다. 당시 학교에서 본 물건 중 잊히지 않는 게 있다. 오타니가 쓰던 의자다. 교사들은 의자 다리에 용접해 또래가 쓰는 것보다 한 뼘 가까이 높이를 올려줬다. 190cm가 넘는 오타니가 편히 공부할 수 있도록 도운 것이다. 야구부를 위한 조치이기도 했다. 이 학교는 아카텡(赤点·낙제점)을 받으면 졸업할 수 없고, 부카쓰(部活·운동부와 동아리의 중간 개념) 활동도 금지된다. 당시 최상급 기대주였던 오타니에게도 예외는 없었다. 고다시마 준조 교장은 "은퇴 이후의 삶까지 내다보고 살아가는데 기본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게 학교의 역할"이라고 했다. 오타니는 고교 3년 동안 내신 성적이 평균 85점(100점 만점)이었다. 대부분의 일본 학교는 아카텡을 넘지 못하면 스타급 선수도 ‘부카쓰’ 활동을 막는다. 없이 운동과 학업을 병행한다.

오타니의 의자가 다시 떠오르 건 1일(현지시간) 끝난 미국 프로야구(MLB) 월드시리즈를 보고서다. LA다저스의 포스트시즌은 일본인 삼총사인 오타니와 야마모토 요시노부(27), 사사키 로키(24)가 이끌었다. 경이로움과 부러움을 동시에 느꼈다. 한때 한국 야구가 패기와 근성으로 부딪혀볼 만했던 일본 야구는 완전히 ‘넘사벽’(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이 돼 버렸다.

일본 야구가 스타플레이어를 끊임없이 배출할 수 있는 이유 중 두꺼운 유소년 선수층을 빼놓을 수 없다. 일본의 학생 대부분은 부카쓰에서 하교 후 운동을 한다. 직업 선수를 꿈꾸는 학생도 있지만 학창시절의 낭만이나 취미로 운동하는 이들이 더 많다. 예컨대 하나마키히가시고의 전교생은 721명이었는데 야구부원이 109명이었다. 이 가운데 오타니처럼 프로 진출을 희망하는 학생은 소수이고 다른 부원들은 트레이너, 의사 등 다양한 꿈을 꾀다. 운동부에 들어가도 '외길 인생'을 강요하지 않으니 부모나 학생 모두 낙오에 대한 큰 부담 없이 운동과 학업을 병행한다. 유소년 선수가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한국 고교 야구부는 90여 팀에 불과하지만 일본은 4,000여 팀이다. 한일 간 엘리트 스포츠의 경기력은 여기서부터 벌어진다.

그런 면에서 '학생 선수 최저학력제'를 둔 우리 사회의 갈등은 갑갑한 면이 있다. 최저학력제는 학생 선수가 학생으로서 기본 역량을 습득할 수 있게 하는 장치다. 예컨대 고교는 국어·영어·사회 과목에서 같은 학교 동학년 평균 점수의 각각 30%는 받아야 대회에 출전할 수 있다. 학년 평균이 60점일 때 18점은 넘게 받아야 된다는 얘기다. 또, 최저학력 이하 성적을 받더라도 온라인 보충수업을 하면 출전 길이 열린다.

엘리트 체육계 일각에서는 이 제도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한다. 운동 연습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쏟지 못해 제2의 손흥민, 이정후, 박세리가 탄생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이 놓친 게 있다. 직업 선수로 성공하는 비율은 극히 낮다는 점이다. 예컨대 프로야구는 올해 신인 드래프트에 1,261명의 학생 선수 등이 참가해 8.7%(110명)만 지명받았다. 그나마 이 선수들이 5년 이상 프로에서 생존할 가능성은 더 떨어진다. 이런 현실에서 최소한의 학력 보장 제도조차 없애자고 하는 건 타당해 보이지 않는다. 가뜰이나 저출생 시대에 '외줄타기 인생'을 강요받는 운동부 문화가 지속된다면 운동하려는 학생은 더 줄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 체육·문화기관 투명성 강화 촉구

시사포커스 김영삼 기자

2025.11.09 15:09

사진=경북도

경북도 산하 문화체육기관들의 운영 투명성과 예산 집행 적정성에 대한 경북도의회 의원들의 강도 높은 질타가 이어졌다.

9일 경북도의회에 따르면 문화환경위원회는 지난 7일 경상북도체육회와 경북문화재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기관 운영 전반의 정책 실효성과 행정 투명성, 예산 집행 적정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감사 과정에서 위원들은 특히 경상북도체육회의 청렴도 부실 문제를 강하게 질타했다. 연규식 의원(포항)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청렴도 부실이 이미 지적됐음에도 2025년에도 청렴도 평가가 4등급에 머물고 있다”며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구조적·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수의계약 관행에 대한 지적도 집중됐다. 정경민 부위원장은 “경상북도체육회의 특수장비 구입을 위한 수의계약 과정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계약 시 도내 업체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철식 의원(경산)은 경북문화재단에 대해 “지난해 지적된 특정 업체 중심의 용역 계약 구조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절차 확립과 지역 업체 참여 확대를 주문했다.

조직 운영과 소통 부재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정경민 부위원장은 경북문화재단에 대해 조직진단 결과 리더십·소통·조직문화 부문 평가가 낮은 점을 지적하며 “통합 이후 경영진 중심의 운영으로 인한 소통 부족 문제”를 제기했다.

박규탁 의원(비례)은 경상북도체육회의 장기 미해결 토지 관리, 체육진흥기금의 목적 외 사용, 여성임원 비율 미달, 인사위원회 운영 미흡을 지적하며 “공적 재원은 규정에 따라 투명하게 운용되어야 하고 감독과 책임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수 인권보호 대책의 실효성 부족도 문제로 제기됐다. 김용현 의원(구미)은 “경상북도 체육회의 비리·인권침해 예방 활동이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선수 심리치료와 상담 지원 등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경민 부위원장은 경상북도체육회가 경북태권도협회의 활동비·채용 절차 문제에 대해 징계를 요구받고도 즉시 직무정지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국비 확보 저조 문제도 지적됐다. 윤철남 의원(영양)은 “경북문화재단 통합 이후 국비 확보 규모가 오히려 줄고 공모사업 실적도 저조하다”며 신규사업 발굴과 중앙정부 연계 강화 등 국비 확보 전략 마련을 요구했다.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의 발급률·이용률이 전국 타 시·도와 비교해 낮은 점도 함께 지적했다.

김대진 의원(안동)은 경상북도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의 결원 증가와 낮은 처우를 지적하며 안정적인 고용 등 광역 차원의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경북문화재단에 대해서는 ESG 경영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취약계층 문화예술 향유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영역별 중장기 대책 및 연도별 계획과 성과지표를 마련해 개선 체계를 구축할 것을 요구했다.

스포츠메세나 운영의 편중성도 문제로 제기됐다. 이철식 의원(경산)은 “경상북도체육회의 스포츠메세나가 농협·금북문화재단·IM뱅크 등 일부 기업에 집중돼 있다”며 “지역 우량기업 참여를 늘리기 위한 홍보와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규식 의원(포항)은 경북문화재단의 해외교류사업이 아시아권에 편중돼 있다며 “APEC 개최와 지역 자산을 활용한 글로벌 콘텐츠 확산으로 문화 경북의 위상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동업 위원장(포항)은 경상북도체육회의 유니폼·훈련용품 등의 구입을 위한 수의계약 절차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북문화재단에 대해서는 ‘2025 전통주&종가음식 문화대축전’의 콘텐츠와 성과가 미흡하다며 지역 전통주 전시·홍보 강화 등 행사 내용 개선을 주문했다.

김용현 의원(구미)은 한국한복진흥원 융복합산업관 입주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청하면 대부분 통과되고 있다”며 경쟁과 성과 중심의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업의 육성과 산업화 연계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03

박규탁 의원(비례)은 경북문화재단에 대해 이사회 의결 기준과 당연직 이사 운영이 불명확하고 출장 등의 복무 관리가 부실하다며 기관장의 솔선수범과 관리체계 정비를 요구했다. 경북메세나협회가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무국 업무를 재단이 사무위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동업 위원장은 감사를 마무리하며 “경상북도체육회와 경북문화재단 모두 도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인 만큼 투명한 회계, 공정한 계약, 책임 있는 조직 운영이 필수”라며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체육·문화 전반의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해 조속히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직 시민, 오직 미래” 유정복 시장, 노동·체육·문화가 어우러진 인천의 가을을 말하다

뉴스프리존 윤의일 기자

2025.11.09 17:01

사진=인천시청

유정복 인천시장은 가을을 맞아 노동 현장과 생활체육 무대, 문화예술 행사 현장을 잇달아 방문하며 “도시의 성장 동력은 시민의 삶 속에 있다”고 강조했다. 노동의 땀, 생활체육의 열정, 문화의 감동이 어우러지는 현장을 통해 ‘시민이 주인공인 도시 인천’의 방향을 다시 확인한 셈이다.

유 시장은 최근 열린 한국노총 노동조합 체육대회에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산업 현장을 지킨 근로자들의 역할을 높이 평가했다. 인천은 최근 2년 연속 경제성장률 전국 1위, 출생아 수가 증가한 유일한 대도시라는 성과를 기록했다.

유 시장은 “인천 경제의 성장과 도시 활력은 현장에서 묵묵히 노력해 온 근로자 여러분 덕분”이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내년부터 근로자 작업복을 저렴하게 세탁할 수 있는 ‘거점형 천원세탁소’ 운영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는 노동자의 실생활 부담을 줄이는 생활밀착형 노동복지 정책으로 평가된다.

유 시장은 인천시민생활체육대회에서 생활체육의 사회적 가치를 강조했다. 그는 건강(Health), 행복(Happiness), 화합(Harmony)을 뜻하는 ‘3H 정신’을 언급하며 “생활체육은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시민이 더 건강하게, 더 행복하게, 서로 연결되게 하는 공동체 활동”이라고 설명했다.

유 시장은 과거 대한민국 국민생활체육회장을 맡았던 경험을 상기하며 다짐을 전했다. “운동은 삶의 기초체력입니다. 시민이 스스로 건강을 지키고, 힘을 모아 인천 발전의 원동력이 되어주길 바랍니다.”

저녁에는 인천시립소년소녀합창단 정기공연 ‘인천! 해방둥이’가 개항 이후 오늘의 세계도시 인천으로 성장한 과정을 음악으로 들려주었다. 유 시장은 공연 관람 후 “문화는 도시의 품격이며, 미래 세대가 도시의 이야기를 이어가는 중요한 힘”이라고 평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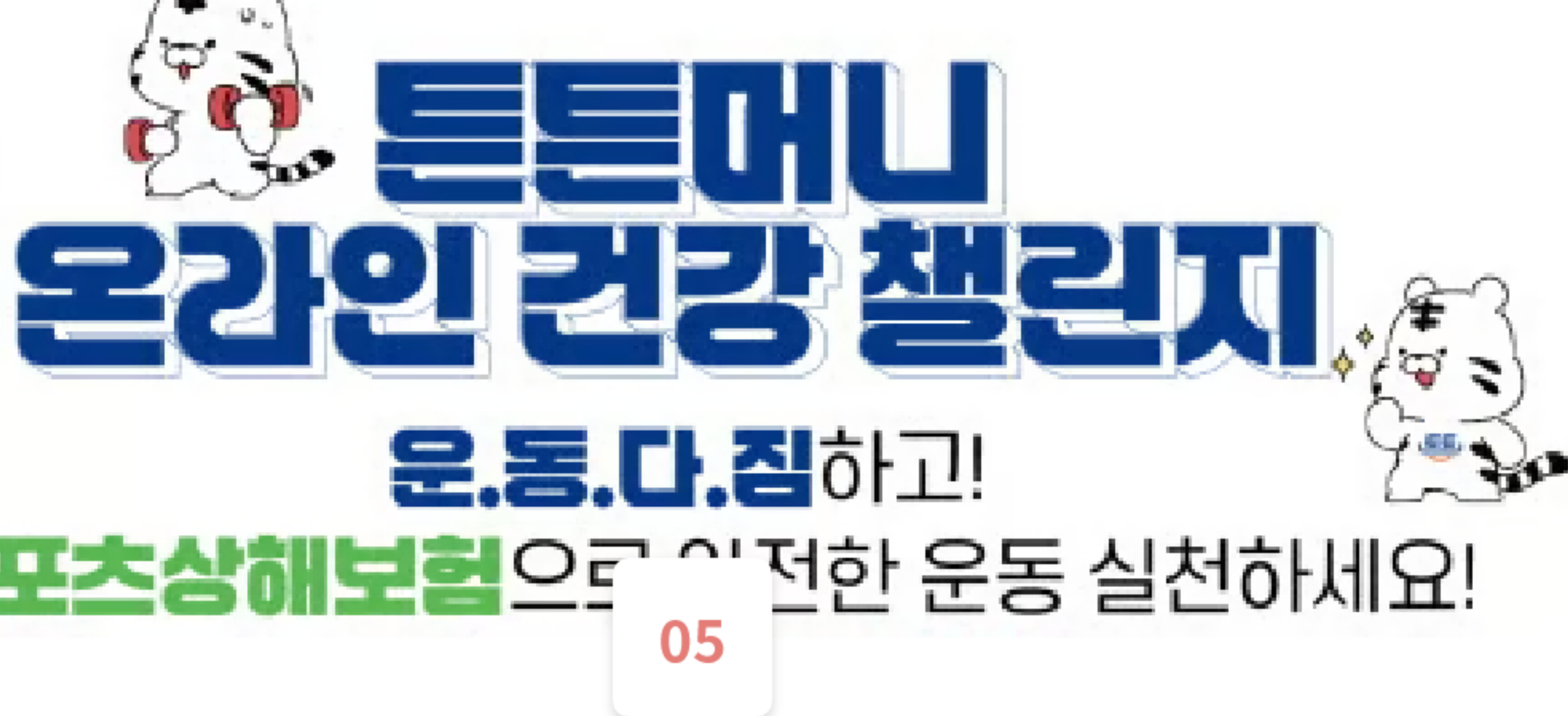


04

이번 일정은 산업·생활·문화 각 분야가 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일상 속에서 서로 연결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근로자의 삶을 지지하고, 생활체육이 활력을 만들고, 문화가 도시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시민 중심 성장 구조’가 인천 시정 전반에 자리 잡고 있다는 해석이다.

유정복 시장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오직 인천, 오직 시민, 오직 미래. 인천의 주인은 시민입니다. 시민의 삶이 뜨거운 만큼 인천의 성장은 계속될 것입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 '튼튼머니'적립 재개

스타뉴스 채준 기자

2025.11.09.13:54

사진=국민체육진흥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국민의 규칙적인 운동 참여를 장려하기 위한 스포츠 활동 인센티브 '튼튼머니'의 포인트 적립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튼튼머니'는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는 국민이 운동 횟수에 따라 포인트를 적립해 스포츠 시설 등록, 스포츠용품 구매, 병원, 약국, 보험료 결제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대국민 스포츠 복지 서비스다.

올해는 1인당 최대 5만 포인트를 적립해 스포츠 상품권으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으나, 전환 기간 경과 또는 연내 지원 예산이 소진되는 경우 포인트 이월이 불가하고 소멸되니 포인트 적립 시 즉시 전환해 사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특히, 지난 10월 스포츠 활동에 따르는 부상 등에 특화해 보장하는 'DB 프로미 스포츠 상해 전용 보험'을 동부화재와 협업을 통해 출시했다. 보험 출시를 기념해 '운동다짐' 온라인 이벤트에 참여한 국민 1천 명에게는 선착순으로 보험 무료 가입(1만 원 상당)의 혜택도 제공한다.

국민체육진흥공단 관계자는 "지난 7월 이후 일시 중단됐던 스포츠 활동 포인트 적립을 기다렸던 국민에게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체육 시민연대 온라인 정기 후원 안내

여러분의 후원이 건강한 스포츠 사회를 만듭니다

‘귀하를 체육시민연대 회원으로 모십니다’

체육시민연대는 우리 사회의 변화를 위해 실천합니다
스포츠인권과평화,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 문화를 함께 만들어갑니다

체육시민연대는
기부금대상비영리민간단체로 시민들의 후원에 의해 운영됩니다
*후원: 국민은행086601-04-095940, 체육시민연대

연말 기부금 영수증 발급

온라인 정기 후원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https://www.sportscm.org/%ED%9B%84%EC%9B%90%ED%95%98%EA%B8%B0>